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과 고려 軍船*

尹 龍 燮**

1. 머 리 말
2.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과 군선 문제
3. 고려에서의 造船 작업
4. <蒙古襲來繪詞>의 고려 군선 자료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3세기 후반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은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흥미 있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 연구자들에 의한 몇 편의 논문이 공간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¹⁾ 그러나 여타 주제에 대한 괄목할 연구

* 이 논문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재원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교류 파견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목포), 기간은 2006. 9. 1~2007. 8. 31이다. 교류기간 동안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성낙준 두 분 관장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공주대학교 교수

1) 박형표, 「여몽 연합군의 동정과 그 전말」, 『사학연구』 21, 1969; 이은규, 「원의 일본정

의 발전에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관심과 논의는 한마디로 '적막강산'의 느낌 그것이다.²⁾ 결과적으로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일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전담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근년에 이르러 산발적이거나 한국사 연구자들의 관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³⁾ 오랫동안 일본 연구자들의 독점 상태에 놓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일본 입장의 시각이 이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은 무엇보다 몽고를 중심으로 한족, 여진족 등 중국대륙의 여러 민족이 연관되어 있고, 고려와 일본이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가 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선 흥미있는 사실이다. 신라의 통일에 즈음한 백강전쟁이나 조선조의 임진왜란, 근대의 청일전쟁과 같은 여타의 동아시아사적 사건에 비할 때에도 훨씬 드라마틱한 줄거리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에 대한 일국사적 시각, 혹은 민족 관점의 역사 서

벌 고찰」, 『호서사학』 1, 1972; 김철민, 「원의 일본원정과 여원관계」, 『건대사학』 3, 1973; 나중우, 「여원 연합군의 일본원정」,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2) 북한의 역사학에서도 고려·몽고전쟁에 대한 각별한 평가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어지는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논외의 사실로 취급되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김위현, 「여원 일본정벌군의 출정과 여원관계」(『국사관논총』 9, 1989)는 여원군의 일본 침공 이전의 준비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였다. 채상식, 「여·몽의 일본정벌과 관련된 외교문서의 추이」,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및 이영, 「여몽 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원관계」(『일본역사연구』 9, 1999)는 비교적 근년의 전문적 관련논문으로서 평가할만하다. 그밖에 이재범, 「여원 연합군의 일본정벌과 동방견문록」(『군사』 50, 2003)이 있으며 필자 역시 기왕에 논문을 1편 작성한 바 있다. 윤용혁,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도서문화』 2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가 그것인데, 이것은 1274년 1차 침입시 연합군의 병력 규모와 군선 규모, 전투에 있어서 '태풍'문제, 연합군 조기 철수 요인 등을 논의한 것이다.

술이 이 같은 사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데 제한적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주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세의 대표적 사건에 속할 뿐만 아니라, 13세기 고려의 정치사 혹은 대몽항쟁사, 생활사 등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고려사 연구의 일환으로서도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⁴⁾

일본에서의 연구는 일제하 池内宏의 연구가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의 논저 『元寇의 신연구』는 일본, 중국, 한국 3국의 사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원 세조의 일본 침략을 동아시아 전체를 그 시각에 넣고 정리한 방대한 논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연구는 ‘원구’ 연구의 단계를 진전시키며 그 결과를 오늘날까지 참조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인식한 3국 관계는 원 지배하의 동아시아였다. 즉 원의 일본 침입은 고려를 정복한 원이 다시 고려를 철저히 지배하여 일체화된 힘으로 일본을 압박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고려의 존재는 원에 附庸하여 일본에 압박을 가한 가해세력으로서의 존재였던 것이다.⁵⁾ 그러나 그 실제의 여러 측면을 진지하게 관찰한다면 고려야말로 일본 침공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려는 원의 일본 정벌에 있어서 여러 차례 사신 파견의 향도 역할을 담당하였으며⁶⁾ 군량 조달을 위한 둔전경략사의 설치, 둔전 준비물자,

둔전 군량료 등을 요구받았다.⁷⁾

원의 일본 정벌 기도에 있어서 고려에서의 군선 제작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31년 池内宏의 비교적 소상한 사료 고증 이래, 일본 연구자에 의한 일정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여원군의 東征과 관련한 造船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려 땅에서, 고려인의 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사 연구자에 의한 우선적인 검토의 대상이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원군의 일본 침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군선문제의 논점을 정리하고, 조선 작업의 현장 및 일본 측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고려 군선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13세기 고려를 둘러싸고 전개된 동아시아 역사의 추이 및 여원 연합군의 동정과 관련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과 군선 문제

(1) 몽고의 助軍 요구와 군선

1274년 몽고의 일본 침입 개시에 수반한 고려에 대한 몽고의 조군 요구와 군선 동원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1273년 4월 제주에서의 삼별초의 패몰 이후 다음해(1274) 정월 초에야 造船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일본 정벌이 매우 화급하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몽고의 고려에 대한 조군 및 군선 제작 요구는 수년 전부터의 일이었고 그것이 1270년 삼별초

4) 전문 연구자의 성과가 미미했던 반면에 근년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에 관한 몇 권의 대중서가 간행되었다. 정순태, 『여원 연합군의 일본정벌』, 김영사, 2007; 제성욱의 소설, 『일본정벌』, 중앙books, 2008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이 갖는 극적 요소에 주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방면의 깊이 있는 대중서가 다양하게 생산되기 위해서도 그 기초 작업으로서의 실증적 연구 작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에 대한 두 차례의 정벌전을 행하였던 사이 그리고 그 전후 종주국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행한 것은 고려이다. 그러므로 원과 고려의 관계 고찰에는 상당한 힘을 기울였다”(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p. 4 서문).

6) 원의 대일 견사는 원종 7년(1266)부터 대덕 3년(1299)까지 11차례 걸치는데, 고려 측의 모호한 태도로 5차 이후로는 거의 고려사신이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위현, 「여·원 일본정벌군의 출정과 여·원 관계」, 『국사관논총』 9, 1989, pp. 4-10 참조.

7) 김위현, 위 논문, pp. 10-18.

의 봉기로 인하여 지연된 상황이었다.

몽고의 고려에 대한 조군 요구는 처음 일본보다는 대남송 전략의 일환이었다. 삼별초 봉기 이전인 원종 9년(1268) 3월 于也孫脫 등이 전한 세조 쿠빌라이의 조서에서는 대송전을 앞두고 고려에 대해 군사와 병선 조달에 대한 준비, 군량의 저축을 주문하게 된다. 그해(1268) 6월(을사) 몽고는 靺都止를 파견하여 병선의 수와 군대 인원수를 점검하고 8월 대장군 崔東秀는 몽고에 입조하여 助軍을 위한 군사 1만을 확보하고 병선 1천 척 건조를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10월에는 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몽고로부터 脫朶兒, 王國昌, 劉傑 등 14명이 입국하였는데 후대한 몽제의 조서에는 이들 사신의 지시에 의하여 배를 건조할 것이며, 군대와 선박을 잘 정돈하여 남송이든 일본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 흑산도와 일본 간의 길을 탐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국창, 유걸 등은 고려 도찰 즉시 흑산도 현지를 점검하였고 12월 몽고 사신 탈타이는 고려군을 사열하고, 흑산도에서 돌아온 유걸은 다시 造船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해도로 나갔다고 한다.⁸⁾

이 무렵 몽고는 남송에 대한 공격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고려의 조군 문제는 일본보다 남송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268년(원종 9) 10월 쿠빌라이는 도원수 阿朮(아출), 劉整 등에 7만의 군으로 양자강 북의 요새 襄陽을 포위 공격케 함으로써 남송에 대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였다.⁹⁾ 그러나 남송 공격을 위한 고려의 조군은 실행되지 않았다. 아마 고려에서의 발전과 대남송전예의 助軍이 실제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고, 거기에 1270년(원종 11) 삼별초의 봉기는 고려의 대송 조군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가 진도에 대치하고 있던 원종 11년(1270) 12월 원 세조의 조서는 고려가 造船 및 징병 명령을 승낙하고서도 성과가 없는 것을 질책하면서, “남송

8) 『고려사』 26, 원종세가 8년.

9) 田中萃一郎 譯補, 『ドーンソウ蒙古史』, 三田史學會, 1933, pp. 538-539.

이건 일본이건 유사시에 대비하여 병마와 군선, 식량을 빨리 준비하도록” 다시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¹⁰⁾ 군선의 조선 문제는 아직 큰 진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측의 조선작업이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것은 삼별초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진도 공격 시 개경 측에서는 4백 척의 선박을 동원하였다. “진도 부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선 260척”에 원의 중서성에서 개경 측에 병선 140척을 추가 동원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¹¹⁾ 삼별초의 봉기에 의하여 고려의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개경 측이 동원한 4백 척의 군선, 특히 추가 동원이 요구된 140척 가운데는 新造의 군선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을 것이다. 진도 공함 이후 제주 공격을 위해서는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 군선의 보강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원종 13년(1272) 9월 삼별초가 충청 서해안(보령)의 고란도에 침입, 병선 6척 소각, 船匠 살해, 造船官 洪주부사 李行儉 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당시 개경 측에 의하여 병선이 제작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제주 삼별초는 이때 연합군의 해상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개경 측 조선지의 공격 혹은 정박중인 군선의 공격을 적극 강화하였다. 같은 해(1272) 11월 삼별초가 합포에 침입, 병선 20척 소각, 몽고군 烽卒 4명을 잡아가고 다시 거제도에서 병선 3척 소각과 현령을 붙잡아간 것, 그리고 이듬해(1273) 정월 삼별초가 합포에 침입하여 병선 32척을 불사른 것은 해상 작전 능력의 확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말해준다.¹²⁾

제주 삼별초의 공격을 바로 앞둔 원종 14년(1273) 정월 개경정부는 경상도에 사신을 보내 병선 건조를 직접 독려하였는데 이때 원의 馬絳이 대장군 宋玠과 함께 병선을 점검하였다. 제주 삼별초 공함에 동원된 연합군의

10) 『고려사』 27, 원종세가 11년 12월.

11) 『고려사』 27, 원종세가 12년 4월.

12) 윤용혁, 「삼별초의 제주항전」,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2000, pp. 247-250.

군선은 160척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규모는 대략 3백 척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 원래 서해도 및 경상도의 군선도 동원될 계획이었으나 이동 집결 중에 일어난 해난사고로 차질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이동 중 침몰한 것은 서해도 병선 20척, 경상도 병선 27척이었다.¹⁴⁾ 제주 공격을 준비하며 개경 측의 군선 조성작업이 일정부분 진행되었다. 원종 13년(1272) 6월 고려가 원에 보낸 표문 가운데 조선소에 대한 삼별초의 공격을 우려하여 금주(김해) 주둔의 원군을 투입해 전라도에 투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¹⁵⁾이나 원종 14년(1273) 병선 건조를 언급한 원 중서성에의 서신¹⁶⁾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 공함을 위하여 새로운 조선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은 진도와는 달리 대양에 위치한 제주의 지리적 여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의 군사 작전에 기왕의 고려 혹은 삼별초 군선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많지만 한편으로 많은 군선의 新造가 불가피하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을 것이다.¹⁷⁾

고려의 조선작업과 관련하여 이 시기 주목되는 사실의 하나는 원종 13년(1272) 3월 전함병량도감의 설치이다. 명칭상 이것은 대규모 군선과 군량

13) 村井 교수는 '제주도 160척'은 잘못된 기록이며 실제 제주를 공함한 연합군의 군선 규모를 3백 척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 근거는 1만 명 병력에 160척은 1척 승선 인원이 62.5명이 되어 1차 일본원정 29인, 삼별초 병선 사례(11척, 390인) 35.5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며, 아울러 문제의 '160척'이 김방경의 고려군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고려사』 김방경전에서 확인하였다. 즉 연합군의 선단을 160척이라 한 세가의 기록은 이러한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것이다.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p. 162 및 p. 185의 주 60 참조.

14) 『고려사』 27. 원종세가 14년 3월 기묘. 서해도의 대표적 조선지로서는 황해도 장산곶이 들어지고 있는데(『선조실록』 18년 6월 을축, 『선조실록』 31년 2월 정축), 일대에서는 역시 양질의 재목이 산출되었다(『선조실록』 18년 4월 경오).

15) 『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6월 임자의 표문.

16) “又年前營造戰艦 至四月 大軍入耽羅討賊”(『고려사』 27. 원종세가 15년 2월).

17) 大葉昇一은 1차 동정군의 군선 대부분이 고려가 보유하고 있거나 삼별초로부터 획득한 것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실제 군선의 건조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大葉昇一, 『文永の役における日本遠征軍の構成』, 『軍事史學』 1999).

을 확보하려는 기구의 신설인데, 단기적으로는 제주 삼별초에 대한 대공세를 위한 준비였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벌까지를 염두에 둔 기구였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 일본 招諭에 대한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었고 이 도감의 설치가 여원관계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원종 12년(1271) 9월 일본에 파견되었던 元使 趙良弼은 이듬해 정월 13일에 일본 사신 12명을 대동하고 돌아왔고 정부는 서장관 張鐸과 함께 이들을 원에 들어가게 하는 등 일본 문제가 차츰 현안으로 대두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추이는 고려를 앞세운 차후의 군사적 행보가 이제 남송이 아닌 일본을 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대외정벌을 위한 고려의 助軍 및 造船에 관한 문제는 삼별초 봉기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삼별초의 봉기라는 고려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본에의 征役이 차츰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원종 13년(1272) 이후 구체화되어 제주 삼별초의 공함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원 연합에 의한 대삼별초 征役은 삼별초 진압 이후 그대로 일본에 대한 작전으로 전환되었던 셈이다.¹⁹⁾ 그러나 대일정역을 위해서는 대규모 군선, 병력과 군량의 확보를 다시 필요로 하였다.

(2) 여원군의 일본 침입 경과

원 세조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을 위하여 1274년과 1281년의 2차에 걸쳐 출정군을 파견하였는데 1차와 2차 공히 함포(마산)에서 여원 연합군의 주력군을 출진시켰다. 제2차(1281년)의 경우는 마산 이외에 중국 영파(명주)

18) 戰艦兵糧都監과 함께 鈿函造成都監이 설치되었는데 후자는 원 황후의 대장경 보관을 위한 용품 제작을 위한 것이었다(『고려사』 27. 원종세가 13년 갑진).

19)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亂と蒙古襲來前夜の日本』,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pp. 162-163.

로부터 구남송군의 10만 병력이 합세하였지만, 이때에도 실제적 주력군은 역시 마산에서 출전한 연합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마산에서 출전한 연합군의 병력 및 군선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1281년 2차 동정의 경우 합포에서의 출정군 4만 2천에 대해서,²⁰⁾ 1차 침입 당시 병력 규모를 3만 2천으로 정리한 견해가 비교적 적합한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²¹⁾

한편 이들 연합군은 1, 2차 공히 9백 척의 선단을 구성하였고, 이들 선단은 『원사』 일본전의 기록에 의하여 대형군선(千料舟), 전투함(拔都魯輕疾舟), 물 수송선(汲水小舟) 각 3백 척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원된 군선의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과 기록상의 충돌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1차 동정에 동원된 병선은 新造된 것이 아니고 삼별초로부터 획득하거나 고려 측이 보유한 병선을 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고, 1차의 경우 병선의 수가 실제 9백 척에 미달하였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일본 원정의 성격상 대형군선이나 급수선 등이 새로 건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과 실제 군선의 건조를 위한 대대적인 노동력 징발에 관련한 기록들을 참고할 때 상당한 군선의 新造가 수반되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당시 대선의 규모는 흔히 생각하는 3백 척이 아닌, 126척 규모였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고려정부가 원 중서성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대선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번 일본 정벌 때 대선이 126척이었다”²²⁾고 한 기록을 주목한 것이다. 이와 함께 1차에서 동원된 승

20) 1281년 마산에서 출정한 연합군 4만 2천의 내역은 몽한군 15,000, 고려군 10,000, 고려 징발의 초공과 수수 17,000 등이다.

21) 1274년 1차 동정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상의 차이로 인하여 논자에 따라 최소 3만에서 최대 4~5만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2차와 비슷한 규모인 약 4만 정도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필자는 32,300으로 추산한 魏榮吉의 견해가 가장 적합한 수치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윤용혁,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 제-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pp. 70-75.

22) 『고려사』 29. 충렬왕세가 6년 11월 기유.

조원의 수가 2차의 40% 미만이었다는 사실, 1차 침입 준비 과정에서 군선의 준비 기간이 불과 5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 쓰시마에서 파악한 당시 연합군의 군세가 '450척'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1차에서 대선의 규모가 2차의 9백 척에 미달하는 규모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²³⁾

여원 연합군의 군선 내용에 대해서 고려가 대선 건조 3백 척의 명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대소선 9백 척'의 작업 완료를 보고하고 있지만, 大葉昇一은 실제 戰船의 新造 대신 중소 다수의 구 선박을 모아 보고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²⁴⁾ 당시 일본 원정의 기일이 매우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의 준비작업은 보다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조선시대 기록을 참고하면 대선 규모에 속하는 선박을 목재의 절취로부터 완성까지 약 두 달(61일) 만에 완료했다는 자료도 있다.²⁵⁾ 고려의 조선에 있어서 당시 동남도도독사 김방경은 남중국의 造船法(蠻樣)을 채용하지 않고 고려 전통의 방식('本國船樣')으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工費를 줄이고 기일을 맞추었다고 한다. 이로써 생각하면 당시 대규모 선단의 조성으로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4개월 여 작업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침공을 위한 원의 造船 명령은 1274년(원종 15) 1월 3일 고려에 공

23) 윤용혁, 앞의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pp. 76-80.

24) 大葉昇一, 「文永の役における日本遠征の構成」, 『軍事史學』, 1999, p. 8 참조.

25) 고성읍 이광현 소장, 『軒聖遺稿』(조선작업을 감독한 저술자의 작업지와 實名은 알 수 없음)에 의하면 '渡海監造'에 임명된 임오년(1822) 3월 25일부터 윤3월을 거쳐 4월 26일까지 61일간의 船役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76명의 인물을 동원하여 건조한 선박은 本板의 길이가 66척(13把 2合)의 큰 규모이고, 175주의 목재가 소요되었다. 작업의 소요 내용은 목재 채벌 6일, 선체 조립 23일, 上粧 17일 등이다(김재근, 「조선후기 선박의 구조-渡海船造船式圖에 대하여」, 『조선왕조 군선연구』, 일조각, 1977, pp. 221-252). 목재를 건조하지 않고 급히 조립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자료에 의하면 생목 건조는 흔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 48, 세종 12년 5월 계해).

식적으로 전달되고 1월 15일 조선 준비를 완료하여 16일 착공, 그 해 5월 말 대소 전함 9백 척의 건조 작업이 일단 종료되었음이 보고되었다.²⁶⁾ 정부는 이 조선 작업을 위하여 문하시중 김방경을 동남도도독사에, 추밀원 부사 許珪을 전주도도지휘사에, 그리고 좌복야 홍록주(洪祿迥)를 나주도도지휘사에 임명하여 조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에서 파견한 총관 홍다구(察忽)가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 조선에 필요한 기술자와 노동력의 징발은 전라도(羅裕), 경상도(金伯鈞), 동계(朴保), 서해도(潘阜), 교주도(任愷) 등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동원한 기술자와 인부들은 도합 3만 5백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²⁷⁾ 작업이 한참 추진되고 있을 때 도로에 각 역참의 전령 기병들이 그칠 새 없었고, 공사 기한은 촉박하여 업무의 추진이 마치 우레와 번개와 같았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였다는 것이다.²⁸⁾

5월 말(1274) 군선의 건조와 군사 및 군량의 확보 등 대략적 출정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 출정지인 합포로의 마지막 집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6월 14일(계해) 향년 56세의 원종이 병 끝에 사망함으로써 대일 정역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합군이 비로소 마산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원종의 장례식(9. 12)이 끝난 뒤인 1274년(원종 15, 충렬 즉위년) 10월 3일의 일이었다. 합포(마산)를 출발한 여원군은 쓰시마(對馬)와 잇키(壹岐)를 거쳐 10월 20일 하카다(博多)에 상륙하여 일본의 방어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그들을 압박하였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군 중 태풍을 만나 큰 타격을 입고 귀국하고 말았다.²⁹⁾

26) 『고려사』 27, 원종세가 15년 정월 3일.

27) 『고려사』 27, 원종세가 16년 3월.

28) 『고려사』 27, 원종세가 15년 정월.

29) 1차 침입의 연합군이 하카다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태풍 요인설이 많았으나, 실제는 예정된 철수 과정에서의 태풍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종의 사망에 의하여 여름 출정을 겨울로 미루게 됨으로써 1차 침입은 처음부터 많은 차질이 전제되었던 작전이었다. 이에

그 후 일본에 대한 재침의 계획이 본격화하는 것은 1279년(충렬 5)부터의 일이다. 6월 일본정역을 위한 전함 900척을 만들라는 통고에 따라, 7월 조인규, 인후를 원에 보내 전함의 수리 건조를 보고하고, 8월 장군 김백군이 원 사신 김종의와 함께 경상도에 가서 군 기자재를 검열하였다. 마침 일본에 보낸 사신이 살해된 사실이 이 무렵 확인되어, 일본에의 재침은 움직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9월 허공을 경상도에, 홍자번을 전라도에 각각 도지휘사로 임명 파견하여 “전함을 수리 건조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 시기 조선 작업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각각 진행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때 權昞을 충청도에 도지휘사로 파견하였고, 計點使를 경상도(朱烈), 전라도(郭汝弼), 서해도(禹濬冲), 동계 및 교주도(崔有候) 등지에 파견하였다.³⁰⁾ 11월 조인규와 인후를 원에 보내 병선 900척, 초공 수수 1만 5천, 정군 1만,³¹⁾ 군량은 11만 석(중국 석) 및 기타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일정의 지체 가능성과 정군 1만의 한 달 식량이 3천 석(중국 석)인데 군량과 말의 사료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281년(충렬 7) 5월 동로군의 여원 연합군 4만은 9백 척 선단으로 합포를 출항하였고 강남군은 남송의 항군을 주축으로 한 10만 병력이 3,500척의 선단으로 합세하였으나 7월 30일 밤부터 엄청난 태풍이 불어 다음날 윤 7월 1일 원군은 거의 궤멸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세조 쿠빌라이는 일본을 포기하지 않고 3차 동정을 준비하였으나 1294년 쿠빌라이 사망과 함께 재침의 시도는 완전히 포기되었다.

대해서는 윤용혁, 앞의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pp. 81-89 참조.

30) 『고려사』 29, 충렬왕세가 5년 9월 계축.

31) 정군 1만은 전국에서 징발한 병력으로 그 내역은 개경 2,500, 경상도 2,390, 전라도 1,880, 충청도 1,900, 서해도 190, 교주도 160, 동계 480 등으로 되어 있어 개경과 3남 지역에서 대부분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 29, 충렬왕세가 6년 11월의 표문).

3. 고려에서의 造船 작업

(1) 造船 작업지, 변산과 천관산

일본 침입을 위한 군선의 제작은 고려에 지워진 부담이었다. 2차에 걸친 일본 침입을 위한 군선 제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량의 船材가 필수적이었다.³²⁾ 따라서 이들 조선작업은 무엇보다 해안에 위치한 양질의 松木 산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의 일본 동정을 위하여 2차에 걸쳐 대량의 군선이 제작되었던 곳은 주로 전북 부안의 邊山과 전남 장흥의 天冠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원감국사 沖止의 시에 “세 곳의 산에서 전선을 만들었다(三山造戰船)고 하였고,³³⁾ 실제 원종 15년(1274) 정월 3일에 추밀원 부사 許珙을 전주도 변산에, 좌복야 洪祿濬을 나주도 천관산에 각각 파견하여 조선용 재목을 준비토록 한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³⁴⁾ 이들 두 지역은 예로부터 질 좋은 목재의 산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해안의 산지이다. 변산의 경우는 ‘나라의 재목창고(國之材府)’라 칭해질 만큼 양질의 목재 산출지로 유명하였고, 이 때문에 변산은 궁궐 건축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었다.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선 숙종조(17년, 1691)에 제정된 ‘邊山禁松節目’은 변산의 船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조

32) 다소 막연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태전홍의는 대선 3백 척의 조선에 요구되는 송목의 전체 소요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太田弘毅, 『高麗の艦船用 材木事情』, 『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 錦正社, 1997, pp. 289-291).

船種\재료	大松	中松	小松	小小松
戰船	4,200주	26,700주	23,100주	12,000개

33) 沖止, 『圓鑑錄』 79, 『嶺南艱苦狀二十四韻(庚辰年造東征戰艦時作)』.

34) 『고려사』 27, 원종 15년 정월 및 6월 신유 원 중서성에의 서장.

치로서 변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³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봉우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이고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여 궁실과 배의 재목은 고려 때부터 모두 여기서 얻어갔다.”³⁶⁾고 하였고,

변산은 나라 재목의 府庫이다. 소(牛)를 가릴만한 큰 나무와 찌를 듯한 나무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층층의 산봉우리와 겹겹의 산등성이에 올라가고 쓰러지고 굽고 퍼져서, 그 머리와 끝의 둔 곳과 밑뿌리와 옆구리의 닿은 곳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옆으로 큰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34, 부안현 산천)

고 하여 변산이 造船과 건축에 적합한 양질의 목재 산지로 유명하였음을 알려준다. 이규보의 경우도 한때 변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변산의 이러한 사정이 그의 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2월(1200)에 조칙을 받들어 변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변산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재목창(國之材府)이다. 궁실을 수리 영건하느라 해마다 재목을 베어내지만 아름답리 나무와 치솟은 나무는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벌목하는 일을 항상 감독하므로 나를 ‘斫木使’라 부른다. 나는 노상에서 장난삼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군사 거느리고 권세 부리니 그 영화 자랑할 만한데/벼슬이름 작목사라 하니 창피하기 그지 없네.” 이는 나의 말은 일이 擔夫, 樵者의 일과 같기 때문이다(이규보, 『동국이상국집』 23, 南行月日記).

변산에서의 벌목 관리는 거의 노동자에 준하는 고된 업무여서 그 스스로

35) 절목은 『비변사등록』 45책, 숙종 17년 8월 24일조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강만길, 『조선업과 조선술의 발전』,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pp. 198-201 참조.

36) 『신증동국여지승람』 34, 부안현 산천조.

公務치고는 일종의 천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한편 전남 장흥의 천관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천관산 : (장흥)부의 남쪽 52리에 있다. 예전에는 天風(山)이라 불렀고, 혹은 支提(山)라고도 하였는데, 몹시 높고 험하여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신증동국여지승람』 37, 장흥도호부 산천조)

고 하였고, 天因이 지은 「천관산기」에서는

이상하고 기괴한 바위들이 많은데, 오뚝한 것, 숙인 것, 우뚝한 것, 입을 벌린 것, 우뚝 일어난 것, 숨어 었드린 것, 울퉁불퉁한 것 등이 천태만상 기괴하고 이상하여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다. 어찌 조물주가 여기에 鍾粹를 모아 놓고 바다를 한계로 하고서 넘어서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인가(『동문선』 68)

라고 하여 그 기괴한 경승을 묘사하고 있다.³⁷⁾

천관산은 예로부터 명산으로 이름이 있었지만 목재 산지로서의 유명도는 변산에 비하여 미치지 못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목재의 가장 유명한 산출지는 변산 이외에 전남의 완도, 충남의 안면도 등이었다. 그밖에 황해도의 장산곶이나 거제도, 남해도 등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천관산에 대해서는 주요 목재 산지로서의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생각하면 당시의 천관산에서의 벌목과 목재 공급은 천관산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³⁸⁾ 이 경우 가장 유력한 곳이 완도이다.

37) 천관산의 일반적 개요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김희태, 「천관산의 역사와 연혁 변천」, 『장흥천관산 천관사 지표조사보고서』, 순천대박물관, 1999, pp. 18-58 참고.

38) 지금의 천관산은 임목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당시에는 배가 관산을까지 들어왔으며 천관산에 나무가 많지 않은 것은 여원 연합군의 군선 건조로 인한 벌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방촌리 입구에 옮겨져 있는 진서대장군과 미륵불이 이때 일본정벌의 무사함을 빌기 위하여 세운 것이라는 구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완도는 천관산과 지척의 거리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양질의 목재 산지로 꼽히는 지역이었고 후대이기는 하지만 造船 관련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³⁹⁾ 아마도 이 같은 사정은 13세기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천관산에서의 조선은 소요 목재가 천관산만이 아니라 인근의 완도 등지에서까지 조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변산과 천관산이 충지가 언급한 '3산' 중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1산이 어느 곳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혹은 이 1산이 전북 군산지역 금강 하구의 '공주산'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있으나,⁴⁰⁾ 공주산의 지리적 조건이 충분한 목재의 공급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변산과 천관산 이외에 군선이 제작된 다른 1산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이 제3의 지역으로서는 우선 제주도(한라산)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에서 고려에 군선 제작을 요구하였을 때의 서장에 의하면 "대선 300척을 전라도와 탐라 두 곳에서 만들도록 하라"고 전라도와 함께 제주도에서의 건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제주도에의 조선은 3차 동정 대비와 관련하여 군선 건조에 대한 지

장흥군, 『전통문화마을, 장흥 방촌』, 1994, p. 75 참조.

39) 『성종실록』 5년 10월에는 "조선용 변산의 소나무는 이미 다 없어져 완도로 자리를 옮겼다" 하였고, 『세조실록』 6년 7월 을해에, 변산과 완도 2개소에 漕轉船 1백 척 건조를 위한 기술자 파견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완도는 신라 청해진의 폐진 이후 군현이 설치되지 않은 채 주민의 거주가 일정하게 제한되면서 특히 黃腸木과 같은 고급 목재의 산출지로 이용되었다. 18세기의 인구는 382호(『여지도서』), 449호(『호구총수』)로서, 이는 고금도(613호, 690호), 신지도(509호, 581호), 청산도(428호, 490호) 등 주변의 작은 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이해준, 「역사적 변천」, 『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1995, p. 29).

40) 진성규, 원감독을 통해서 본 원감독사 충지의 국가관, 『역사학보』 94·95, 1982, p. 263.

41) 공주산은 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금강 하류변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종류의 공주로부터 떠내려 왔다는 전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공주산 주변 사람들이 "뱃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하였으나, 여기에서의 뱃일은 조선 관계라기보다는 船運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 조선시대 나리포창과 수신당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12조창의 하나인 진성창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는 것이 이에 참고된다(윤용혁, 『금강의 하운과 공주산』,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p. 149 참고).

원 19년(1282) 원 세조의 조칙에서 平瀨(평란)·揚州·隆興·泉州 등과 함께 고려, 탐라에 명하여 대소선 3천 척을 만들도록 명하였다.⁴³⁾ 平瀨·揚州·隆興·泉州 등은 강남 지역이고 平瀨은 발해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瀨河의 하류 연안 북중국의 도시이다.⁴⁴⁾ 이 가운데 고려와 탐라가 조선지로 병기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 2차 동정 당시 제주에서 제작된 동정용 군선 1백 척을 고려에 하사하였다고 한다.⁴⁵⁾ 다음 기록은 제주에서 실제 군선의 일부가 제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지원 신사년(1281, 충렬왕 7) 원이 일본을 정벌하고자 전 왕조에 명하여 전함 9백 척과 군수물자 및 무기 일체를 준비하게 하였다. 때문에 명을 탐라에 내려 1백 척을 건조하게 하고 물자도 맞추어 부족함이 없게 하였는데 그 계획은 모두 仁坦(고인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원 21년(1284)에 또 왕명으로 금폐에 명위장군 안무사사를 제수받았다(『동문선』 101, 「星州高氏家傳」).

인단(고인단)은 탐라총관부에서 몽고 달로화적(다루가치) 막하의 총관직에 있던 인물로서 이는 원의 일본 침입에 부응하여 제주의 토착세력이 적극 협조하여 실제 조선작업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전한다. 제주에서의 조선작업은 한라산의 목재를 이용하여 북제주 연안의 조선장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제작된 선박을 다시 큰 바다를 건너 마산 등지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일본정벌에 참여하였던 군선 가운데 제주도 조선의 군선이 포함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⁴⁶⁾

42) 『고려사』 27, 원종세가 15년 2월.

43) 『원사』 12, 세조본기 지원 19년 9월 임신.

44) 太田弘毅, 「第三次日本遠征計劃と中國大陸の艦船等供給事情」, 『蒙古襲來-その軍史的的研究』, 錦正社, 1997, pp. 195-198.

45) 『원사』 13, 세조본기 22년 4월.

부안과 장흥 이외 군선 조성 지역으로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제주도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이외에 몽고군의 주둔지 금주에서 가까운 경상도 남해 연안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목재 산지로서의 지리산과 연결되고 연합군의 출정지와도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이다.⁴⁷⁾ 또 원감국사 충지의 시 가운데 1280년 전함 조성시 영남지방에서의 어려웠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당시 영남 지역 남해 연안에서 실제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고려 군선의 조성지는 변산(부안)과 천관산(장흥) 이외에 아마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경상도 남해안의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는 정도로 이 문제를 일단 정리해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목재 산지와 造船場(船所)과의 관계이다. 변산과 천관산의 목재는 인근 가까운 지역에 조선장이 설치되어 군선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⁴⁸⁾ 앞서 충지의 시에서 '3산에서 전선을 만들었다'한 것처럼 당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선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실은 장흥부 수령으로 파견된 尹諧가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 건조하는 것을 감독하였다⁴⁹⁾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로써 보면 현지 작업의 수행에는 지방 수령들도 작업의 진척을 위하여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흥의 경우 당시 관아가 천관산 아래에 위치하여 있어서 관아 자체가 작업 현장에 인접해 있었던 셈이다.⁵⁰⁾

46)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문종 연간 송과의 통교를 위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베어 대선을 만들고자 한 기록이 보인다(『고려사』 문종 12년 8월 을사). 造船과 관련하여 몽고의 탐라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이는 것은 고려의 대남송전 지원이 추진될 경우 주군선 제작지를 제주와 전라도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7) 3산 중의 1산이 공주산은 아닐 것이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고 울창한 산림을 가진 지리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은 이점에서 시사적이다. 구산우, 「일본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p. 241 참조.

48) 본고의 작성 과정에서 필자는 변산과 천관산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안군 유종남씨, 장흥읍사무소 양기수씨의 도움을 받았다.

49) 『고려사』 106, 尹諧열전.

변산의 조선지는 현재 부안군 진서면의 곰소 일대, 그리고 장흥은 관산읍 죽청리 일대로 알려져 있다.⁵¹⁾ 진서면 진서리의 곰소 일대는 조선조 黠(검)毛(浦)鎭이 설치된 곳이다. ‘검모’는 곰소의 ‘곰’과 같은 어원의 지명이라 생각된다. 곰소는 원래 범섬(虎島)과 熊淵島 등의 섬이 있었으며, “그 앞에 깊은 沼가 있어서” 곰소라 하였다고 한다.⁵²⁾ 공민왕 7년(1358) 7월 왜적이 검모포에 침입하여 전라도 漕船을 불태웠으며,⁵³⁾ 우왕 2년(1376)에 “왜선 50여 척이 熊淵에 와서 정박하며 狄峴을 넘어 부령현을 노략질하였다”⁵⁴⁾고 하여 중요한 정박처 혹은 수륙을 연결하는 출입처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 때 섬을 깎아 연속시켜 육지로 변하여 오늘에 이른다.⁵⁵⁾ 검모포진이 있었던 구진마을 해안 개펄에서는 다량의 원목 통나무가 1930년대 개펄 개간시 나왔다고 한다. 선박 조선 작업시 통나무 받침대(‘바탕’)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목이라는 것이다.⁵⁶⁾ 변산 반도의 송목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왔던 조선작업의 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산은 7세기 후반(660-663) 백제 부흥운동군의 거점으로 추정하는 우금산성이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고려시대의 기와편과 청자, ‘天順

50) 강홍은 공예태후 임씨로 인하여 인종대 장흥도호부가 되었다가 원종 6년(1265) 懷州牧으로 승격하였다. 이 무렵의 치소가 천관산 기슭이며, 그 후 왜구가 창궐하자 비로소 바다로부터 내지로 치소를 옮기게 된 것이다. 원종 6년 회주목 승격의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유의해 볼 사항이다.

51) 장흥군, 『고출고을 장흥』, 1982, p. 131.

5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5, 전남편 장흥, 1983, p. 464.

53) 『고려사』 39, 공민왕세가 7년 7월.

54) 『신증동국여지승람』 34, 부안현 교량 및 『고려사』 133, 신우전 2년 10월.

55) 『문헌비고』에 “點毛浦鎭: 城池는 지금 폐했고 倉이 둘이다” 하였고, 이규보의 시에서는 변산 곰소만 일대의 풍광에 대하여 “흐르는 물소리 속에 저녁되고 다시 아침이 되니/바다마을 울타리는 그리도 쓸쓸하구나/호수가 맑으니 마음의 달은 교묘하게 도장 찍은 듯하고/개포 넓으니 포구로 이른 조수 마구 삼킨다/낮은 돌 물에 잠겨 편평하게 솟돌되었고/부서진 배 이끼에 싸여 다리 만들었네”라 하였다.

56) KBS역사스페셜, 『역사스페셜』, 효형출판, 2003, pp. 192-193.



부안 변산 곰소만 조선지



장흥 관산읍 죽청리 조선지

8년'(1464, 세조 10)명 기와가 출토된 바 있어 고려·조선 시기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다.⁵⁷⁾ 상서문 고잔리의 목포(나뭇개)는 옛날에 배가 드나들던 곳이며, 나무가 많아 '목포'라 했다고 한다. 부근의 군역들(군전들)은 옛 싸움 때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라고 한다.⁵⁸⁾

변산과 함께 대표적인 조선지가 장흥 천관산 기슭의 해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산읍 죽청리 일대가 지목된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는 관산읍 죽청리 산 26-1(임) 지점을 '장흥 죽청리 조선장지'로 수록하고 있다.⁵⁹⁾ 죽청리의 일대는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매우 심하지만 죽청포는 일찍부터 제주도와 일본으로 가던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⁶⁰⁾ 죽청포는 죽천의 하구로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죽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지금은 육지이지만 원래 장꽃도, 고마도 등이 앞을 가려 호수 같은 만(灣)을 형성한 지역이다. 또 조선시대 읍지 지도에는 죽청리 조금 위쪽 芝川의 해변에 船所가 있었음이 표시되어 있다.⁶¹⁾ 이러한 점에서 죽청리 일대에 천관산의 조선장이 설치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장 관련 구체적 유적이나 유물이 전혀 검증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의 조선지의 범위를 위의 조사에서처럼 좁은 지점에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당시의 造船은 대형 군선을 단기간에 집중 제작하는 것이어서 조선장의 범위가 넓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장은 배의 건조만이 아니라 작업에 투입되는 기술자와 인부들의 주거 및 이를 지휘 감독하는 군 조직과 관리의 주둔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조선장의

57) 전북문화재연구원, 『부안 우금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5.

5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전북편 부안, 1981, p. 383.

59) "마을 앞 선창에서 보이는 좌측 일대가 조선장이다. 이곳은 과거 여원 연합군이 일본 정벌 때 배를 건조하였다는 곳으로 주민들은 이곳을 '뱃공장'으로 부르고 있다. 지금은 축사가 지어져 있으며 또한 해안 도로 건설로 인하여 원형은 파괴되어 있다"(남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장흥군)』, 2004, p. 212).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전북편 부안, 1981, p. 380.

61) 『장흥도호부지』, 1871.

영역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관산에서의 造船은 인근 완도로부터의 선재 공급이 일정 부분 수반되었을 것으로 본다. 죽청리 일대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 개설과 개발 사업의 진행 시 관련 유적 검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죽청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대덕읍에서 신리로 가는 고개인 원무덤재에서 도로공사 중 철갑과 철모가 나왔다는 사실도⁶²⁾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⁶³⁾ 후쿠오카 箱崎宮 신사 경내에 있는 돌덧 안내문에는 이 돌덧이 여원 연합군 군선의 것으로 장흥 천관산의 돌로 제작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흥미 있는 설명이다.

부안 변산과 장흥 천관산 일대에서의 조선 작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두 지역이 모두 고려청자의 대표적 산지와 가깝다는 것이다. 부안 변산은 유천리와 진서리의 이른바 부안 청자의 주산지이며, 장흥의 조선지는 강진 청자 도요지와 근접한 지역이다. 이는 조선을 위한 지리적 조건이 한편으로 청자 제작의 지리적 조건과 일치하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3세기 말의 대규모 조선작업이 실제 이들 청자 생산지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조선작업과 고려민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된 고려선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원의 丁右丞이란 자는 "강남

62) 장흥군, 『고줄고을 장흥』, 1982, p. 159.

63) 천관산에서 조금 떨어진 대덕읍에 "예로부터 전하기를 胡酋의 關支像이라 전한다는 연지대 석상(『장흥읍지』, 大興坊, 1910), 혹은 고려 때 허연지라는 처녀가 원나라 임금의 후궁으로 뽑혔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으니 그 원혼을 풀어주려고 대를 쌓고 그 위에 그 처녀의 석상을 들어놓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설화(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전남편 장흥, 1983, p. 475)는 동정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관심을 끄는 이야기이다.

의 전선은 크기는 하나 무엇에 부딪히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하였습니다. 만일 고려로 하여금 전선을 만들게 하여 다시 정벌한다면 일본을 정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⁴⁾라고 하여 남송의 함대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자료에서도 “대소의 선함이 파도와 바람으로 허다히 부서졌는데 오직 고려선만 견고하여 보전되었다”⁶⁵⁾하여 역시 강남의 구남송선에 비하여 견고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⁶⁶⁾

고려는 원의 일본 침공에 군사와 뱃사공을 동원하여 파견한 것 이외에 대량의 군선을 건조하여 제공하였고, 식량과 무기 등의 군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몽고의 일본에 대한 침공 의도가 표출되면서 이를 가장 우려하였던 것이 고려정부였다. 일본 戰役에의 준비가 당시의 고려민, 특히 남부지역의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데 이를 묘사한 시가 전한다. 원감국사 冲止의 작품이 그것이다.⁶⁷⁾

다음은 ‘庚辰年 造東征戰艦時作’이라는 부제가 붙은 「영남지방의 어려운 모습(嶺南艱苦狀二十四韻)」이라는 제목의 시이다.⁶⁸⁾ 경진년은 충렬왕 6년(1280), 제2차 동정의 1년 전으로서 전함과 식량의 조달에 한참 부심하였을 시점이다.

영남지방의 간고한 모습

嶺南艱苦狀

64) 『고려사』 30. 충렬왕세가 18년 8월 정미.
 65) 『秋澗先生 大全文集』 40. 汎海小錄(재인용).
 66) 2차 동정에서 고려의 함선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에 반하여, 특히 1차에서 연합군의 함선이 대풍우로 크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군선 건조가 시일에 쫓긴 ‘부실공사(突貫工事)’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黑田俊雄, 『日本の歴史』, 中央公論社, 1965, p. 95; 太田弘毅, 『元寇時の高麗發進 艦船隊の編制』, 『蒙古襲來-その軍事史的研究』, 錦正社, 1997, pp. 294-295 참고.
 67) 번역은 진성규 역, 『원감국사집』, 아세아문화사, 1988에 의함.
 68) 원감국사 충지의 이들 시는 진성규, 「원감록을 통해서 본 원감국사 충지의 국가관」, 『역사학보』 94·95, 1982에 처음 소개된 바 있고, 14세기 대외관계의 상황에서 경상도 지역민의 사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pp. 238-241 참조.

말하려하니 눈물이 먼저 흐르네
 두 道에서 군량을 준비하고
 세 곳의 산에서 戰船을 만들었네
 부세와 요역은 백배나 되고
 力役은 삼년에 뺏겼네
 徵求는 星火같이 급했고
 호령은 우뢰처럼 전하네
 (중략)

水手(뱃사공)는 밭고랑으로 물고
 梢工(키잡이)은 해변으로 가네
 하인 뺏아 갑옷 입히고
 장사 뺏아 창메게 하네
 단지 시간이 촉박하니
 어찌 촌각이라도 지연이 용납되랴
 처자식은 땅에 주저앉아 울고
 부모는 하늘보고 울부짖네
 幽明이야 다르지만
 목숨 온전함을 어찌 기약하라
 남은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뿐
 억지로 살려니 얼마나 고달프랴
 고을마다 반은 도망간 집이요
 마을마다 모두 전지가 황폐했네
 어느 집인들 수색하지 않으며
 어느 곳인들 시끄럽지 않으랴
 관세도 면하기 어려운데
 군역을 어찌 덜겠는가
 백성의 절고는 날로 심하고
 피곤과 병은 어찌 회복되랴
 접히는 일마다 모두 슬픔을 건디려니
 삶이란 진정 가련하구나

愆說涕將先
 兩道供軍料
 三山造戰船
 征徭曾百倍
 力役亘三年
 星火徵求急
 雷霆號令傳
 水手驅農畝
 梢工卷海堦
 抽丁擯甲冑
 選壯荷戈鋌
 但促尋時去
 寧容寸刻延
 妻孥啼蹙地
 父母哭號天
 自分幽明隔
 那期性命全
 孑遺唯老幼
 強活尙焦煎
 邑邑半逃戶
 村村皆廢田
 誰家非索爾
 何處不騷然
 官稅竟難免
 軍租安可蠲
 瘡痍唯日甚
 疲瘵曷由痊
 觸事悉堪慟
 爲生誠可憐

여기에서는 '2도에서 군량을 준비하고, 3곳(3산)에서 전함을 건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특별히 '영남 지방'을 언급한 것은 이 무렵 충지가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며 군역으로 인한 참담한 상황을 직접 목도하면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시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⁶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에 대해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여준다. 연합군의 일본 침입을 원 황제 중심의 천하 구원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묘사한 東征頌이 그것이다.

그때에 우리임금에게 명령했네	時乎命我君
천 척의 龍鵠의 배와	一千龍鵠舸
십 만의 虎豹軍으로	十萬虎豹軍
扶桑(일본)의 들에서 문죄하고	問罪扶桑野
合浦(마산)의 물가에서 군사 일으켰네	興師合浦濱
북소리 큰바다를 진동시키고	鼓聲轟巨浸
깃발은 먼 구름을 떨쳤다오	旌施拂長雲
용감한 장수들은 모두 죽음을 맹세하고	驍將皆趨死
영웅들은 공훈을 다투었네	英雄競立勳
강가에서 韓信의 배수진을 생각하고	江思韓信背
배에서는 孟明같이 火攻하려 했네	舟慾孟明焚

원감국사 冲止(1226-1292)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본명이 魏元凱(혹은 魏珣), 19세에 예부시에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가 전란 중 29세가 된 고종 41년(1254) 승려로 출가한 인물이다. 원종 7년(1266)부터 수년간

69) 2차 동정이 끝난 후 새로 戰役을 다시 준비하는 1283년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충지의 다음 작품 역시 유사한 사정을 전한다. "일본정벌이 시급한데/농사일은 누가 다시 생각하랴/사신은 끊이지 않고/동으로 서로 달리네/백성들이 전역에 가니 고을은 비었고/말은 달려 강가로 향하네/밤낮으로 벌목하여/전함 만들다 힘은 다했고/尺地도 개간하지 못했으니/백성은 무엇으로 연명하랴/가구마다 목은 양식 없고/태반은 벌써 끊어서 우노라/하물며 다시 농업을 잃었으니/당연히 다 죽음만 보겠네"("憫農黑羊四月旦日雨中作").

김해현의 甘露社에, 그리고 순천 定慧社(송광사)에 주석하는 등 특히 영·호남 지역 남해 연안에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⁷⁰⁾ 그가 일본 원정으로 인한 민생의 피해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벌전을 두둔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 관직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연히 현실을 수긍하는 입장을 함께 갖게 된 때문일 것이다.⁷¹⁾ 그러나 영호남 지역에서의 승려 생활, 거기에 그의 출신지인 장흥은 바로 東征 전함의 주요 건조지 중의 하나였다. 이른바 3산의 하나가 장흥 천관산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이 충지에게 있어서 민생의 간고함을 더욱 깊이 체감하는 여건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위에 인용한 충지의 시에 의하면 우선 군선의 제작은 3개 처에서, 그리고 군량의 공급은 2개 도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군량 공급의 2개 도는 경상도와 전라도임이 분명하다. 경상, 전라도는 고려·조선 일대를 통하여 원래 조세 비중이 많은데다, 여몽 연합군의 집결처였던 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운송의 측면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군량의 조달은 군현 행정 체계를 통한 전반적 조치였을 것이지만 경상도의 경우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밀양 일대가 그 주요 공급처의 하나로 주목되었음을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守山堤：守山縣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金方慶이 이 제방을 쌓아서 발에 물을 대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량을 준비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26, 밀양도호부 고적).

원래 밀양 수산제는 김제의 벽골제, 제천 의림지, 상주의 공검지 등과 함

70) 원감국사 충지의 이력에 대해서는 진성규, 「원감국사 충지의 생애」, 『부산사학』 5, 1881 참조.

71) 이 점을 주목한 구산우 교수는 이를 "그가 형세론적 세계관을 가졌거나, 원의 요청에 의하여 마지못해 지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구산우, 앞의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p. 239).

개 삼한시대 이래 논농사의 근거지로서 주목받아온 지역이다. 『密州舊誌』에서는 이 수산제를 속칭 ‘國農所’라고 하며 “신라왕이 행차하여 배를 띄우고 놀던 곳”으로 전한다고 하며, 김방경이 ‘제방을 증축하려 한 것’인데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수산제는 현의 북쪽 2리 쯤에 있으며 국농소라고도 한다. 둘레가 30리이다. 세모마름·연·마름·귀리가 멀리까지 가득하였다. 그 가운데 竹島와 鰲山이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신라왕이 離宮에 遊幸하여 배를 타고 노닐던 곳이라 한다. 뒤에 고려 김방경이 원나라의 명에 따라 일본을 정벌할 때 이곳에 주둔하면서 長堤를 증축하여 軍需로 삼으려 했으나 그 토질이 모래흙인지라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密州舊誌』 府南面 坊里)

신라왕의 행차는 수산현 서쪽 5리에 있었다는 離宮臺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산제의 기원이 고대로부터이며 경상도 농업생산에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⁷²⁾ 水門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산제는 산 계곡을 막은 일반적 저수지가 아니고 높은 지점의 평지 골짜기 양쪽을 막아 제방을 쌓고, 낙동강의 범람한 물을 가두어서 골짜기 내부의 낮은 경작지로 공급한 것이라 한다. 수문은 조선시대 조성된 것이지만 기록과 주변 유적의 성격에 비추어 수산제가 고대 이래의 농업 유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⁷³⁾ 조선 전기에도 진수군을 동원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관둔전으로 운영되었는데,⁷⁴⁾ 이는 개인 경작이 쉽지 않았던 이 지역의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김방경의 수산제 증축은 바로 둔전 운영에 의한 군량 조달의 목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밀주구지』에서는 수산제의 토질이 모래흙이라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72) 수산제에 대해서는 이한상, 「우리나라 고대 수리시설과 수산제」 및 김광철, 「여말선초 밀양 지역사회와 수산제」(『석당논총』 36,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5)를 참고하였음.

73) 이동주, 「밀양 수산제 수문의 발굴조사와 성격」, 『석당논총』 36, 2005, pp. 36-37.

74) 엽정섭, 「조선초기 밀양 수산제 국둔전의 설치와 경영」, 『석당논총』 36, 2005 참고.

이것은 둔전이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소요 군량의 일정량을 수산제 일대에서 공급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당시 고려는 대량의 군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추가 징세의 방식 이외에 새로운 식량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부심하였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전라도의 경우 역시 東征用 군량의 확보는 전 지역에 걸쳤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지였을 김제 벽골제 지역이 식량 확보원으로 특히 주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제평야는 백제 이래 대규모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새로운 간척과 농지확보가 끊임없이 진행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몽고 침입기 벽골제 ‘조연벽 장군’의 다음 전설은 김제 지방의 이러한 사정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벽골제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제 조씨의 시조 趙連壁 장군과 벽골룡에 얽힌 이야기이다. 조연벽은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술을 좋아하여 김제 고을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부탁하는 것이었다. “나는 벽골제를 지키는 벽골룡인데 내일 정오 부안 변산에 사는 청룡이 벽골제를 뺏으러 올 것이니 나를 도와 청룡을 물리쳐다오.” 깨어 보니 꿈이었다. 다음 날 조연벽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벽골제에 나갔다. 갑자기 먹구름과 함께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쳤다. 먹구름 속에서 청룡이 머리를 내밀고 불을 토하자 벽골제의 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백룡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청룡과 백룡은 하늘에서 뒤엉켜 엽치락 뒤치락 반나절을 싸우더니 마침내 힘에 부쳐 도망치는 백룡을 청룡이 뒤쫓는 찰나 조연벽은 청룡을 향해 힘껏 활을 쏘았다. 화살을 배에 맞은 청룡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밤 벽골룡이 나타나 “나를 살려준 보답으로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릴 것이다”고 사례하였다. 조연벽은 얼마후 무과에 급제하였고 1232년 몽고군이 쳐들어오자 처인성에서 적장 살레탑을 사살하고 몽고군을 섬멸하였다.⁷⁵⁾

75) 김제군, 『김제군사』, 1994, pp. 1424-1426의 「조연벽과 벽골룡 이야기」를 필자가 간략히 정리한 것임.

이 전설상의 조연벽 장군은 김제 조씨의 시조로서 고종 19년(1232) 처인성 싸움에서 몽고의 살레탑을 사살하는 인물로 연결되고 있다.⁷⁶⁾ 청야전과 산성·해도에의 입보가 중요한 전략이었던 대몽항전기의 실상에 비추어 생각할 때, 위의 설화가 실제 김제 지역의 방어전과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전설은 당시 식량의 확보를 둘러싸고 벽골제 일대 김제평야가 가지고 있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벽골제를 위협한 청룡이 부안의 변산으로부터라는 이야기는 여원군의 일본 원정과 관련된 군량의 확보를 상징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수산제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전라도의 경우 당시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노동력 투입에 의한 벽골제 일대의 새로운 정비 작업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⁷⁷⁾

4. <蒙古襲來繪詞>의 고려 군선 자료

(1) 군선 자료와 志賀島 해전

마산(합포)에서 발진한 연합군의 선단은 1, 2차 공히 대소 9백 척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9백 척의 구성은 千料舟, 拔都魯輕疾舟, 汲水小舟 각

76) 벽골제의 조연벽 장군 설화에 대해서 주목한 강봉룡 교수는 이것이 대몽항전기 “몽고의 침략으로부터 김제를 지켜낸 역사적 사실의 반영”일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강봉룡, 「벽골제의 축조 및 수축과 그 해양사적 의의」, 『도서문화』 2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p. 421.

77) 벽골제는 330년 시축 이후 지속적으로 보충된 기록이 있으며, 관개 기능을 갖는 저수지의 성격 이외에 간척에 의한 농지 확대의 성격이 강하다. 851년 청해진의 폐진에 따른 벽골군에의 대규모 사민도 농지의 새로운 개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정용 군량의 확보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김제 평야의 생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때 기울여졌을 것이다.

3백으로 기록되어 있다.⁷⁸⁾ 그리고 2차 원정에서는 10만 규모 1천 척의 구남송군이 주로 영파(경원) 일대로부터 출정하였다. 따라서 1274년, 1281년 마산 출정의 군선은 모두 고려에서 제작된 것이고, 1281년 구남송군의 선박은 강남선이라 할 수 있다. 여몽군의 일본에서의 전투에 대해서는 전투 상황을 두루마리로 그린 그림 자료가 전하고 있다. 여원 연합군의 일본 침입 10여 년 뒤, 13세기 말 제작으로 알려진 <몽고습래회사>가 그것이다.⁷⁹⁾ 이 그림 가운데는 군선이 포함된 전투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하여 고려 군선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군선의 船籍에 대한 문제는 여몽전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군선의 구별만이 아니라, 이에 승선한 군사와 군복, 그리고 이들이 휴대한 무기류와 기물, 깃발 등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기초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에 비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그림 상으로 선적 문제를 명확히 가르는 데는 여러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가 일본 연구자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왔던 것도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일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고려 몽고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군선 연구 자들에 있어서도 이 자료는 그동안 고려 군선과 관련한 적극적 자료로 활

78) 『원사』 208, 일본전.

79) <몽고습래회사>는 전투에 참가한 肥後國의 御家人 竹崎季長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제작 시기는 永仁 元年(1293)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竹崎季長(타케자키 스에나가)이 자신이 견문한 것을 화공 土佐長隆·長章 부자에게 그림(繪)을 그리게 하고 설명(詞)을 자신이 붙인 것으로 大矢野十郎의 添狀(『蒙古襲來繪卷物并軍旗之由來』)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畫師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은 채 교토의 화공, 큐슈 태재부의 화공, 熊本의 화공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림 畫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략 5개의 화풍이 나타나 실제 작업에는 여러 명의 畫師가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大倉隆二, 『<蒙古襲來繪詞>を讀む』, 海潮社, 2007, pp. 62-71 및 太田 彩, 『繪券 蒙古襲來繪詞』(日本の美術 414), 至文堂, 2000, pp. 64-71 참고.

용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림 가운데 등장하는 선박이 고려의 것이라는 확증을 가질 수 없었고⁸⁰⁾ 혹 고려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림에서의 선박이 실제 고려선의 본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⁸¹⁾

〈몽고습래회사〉에는 연합군의 군선으로 3종류의 군선이 등장한다. 군선이 등장하는 장면은 순서로 보아 그림의 뒤쪽(하권 제26지-34지)으로서, 모두 1281년 2차 동정 시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몽고습래회사〉의 제작을 1293년으로 본다면 10여 년 뒤에 그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남선과의 혼선 등으로 다소 실제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몽군의 군선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권 그림에서 보이는 대략 3종의 군선은 다음과 같다.⁸²⁾

- (A) 〈26지-27지(제16그림)〉 누마루가 설치된 '위풍당당한' 3척의 대선이 등장하며, 일본군(大矢野 3형제・季長 등)과의 치열한 접전이 묘사됨.
- (B) 〈28지-31지(제17, 18그림)〉 전투 병력만을 가득 적재하고 이동중인 도합 3척의 경량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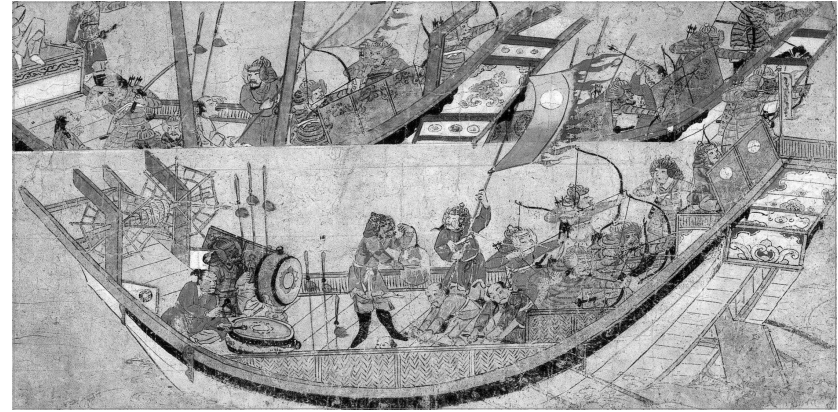
80) 다음의 언급이 이에 대한 참고가 된다. “고려가 건조한 군선이라는 확증은 없어도 일본에 있는 〈몽고습래회사〉에 여원군 군선 그림이 몇 장 들어 있는데 (중략) 이 배는 그 船尾 부분의 구조와 舵樓의 모양 등으로 보아서 중국 강남선인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당시의 고려 군선을 유추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김재근, 「고려의 선박」,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 51).

81) 그 후 같은 필자의 언급은 승선한 병사의 변발로 동로군의 군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池内宏의 고증을 인용하면서도 “그러나 이 그림의 배를 가지고 그것이 곧 당대 고려 군선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란이 경과한 지 10여 년 후에 다분히 상상적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고려선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재근, 「고려의 배」, 『우리 배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p. 171-173). 그런데 정작 池内宏이 마산 출발의 동로군(여원 연합군) 군선으로 지목한 그림(본고에서의 C에 해당함)은 다시 논의하겠지만 사실 동로군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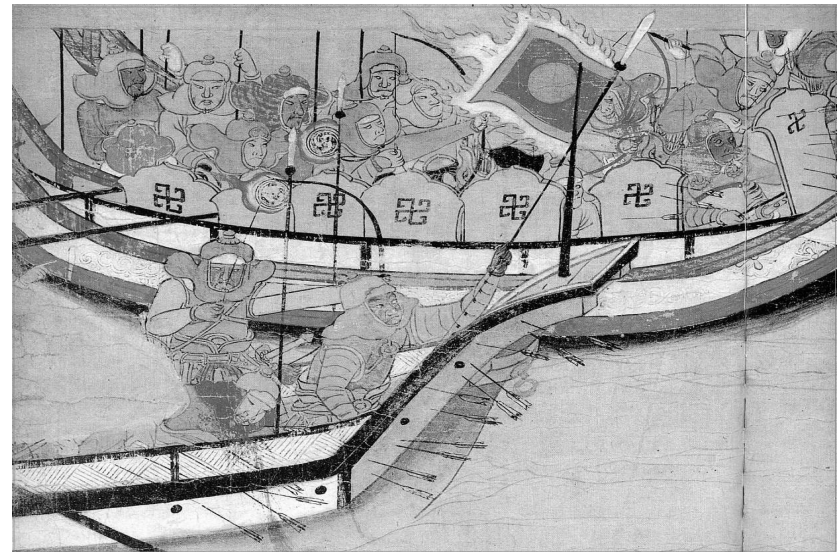
82) 필자가 주로 참고한 〈蒙古襲來繪詞〉 그림은 中央公論社 간행의 『蒙古襲來繪詞』(日本繪卷大成 14, 1978)이다. 원본은 일본 宮内廳 三丸尙藏館 소장이며 크기는 상권 40.2×2324.3cm, 하권 39.5×1985.6cm이다.

(C) 〈33지-34지(제19 그림)〉 대선 규모의 3척이 등장하나, 선박 및 승선자가 (A)와는 다른 성격의 군선이며 승선자의 분위기는 이완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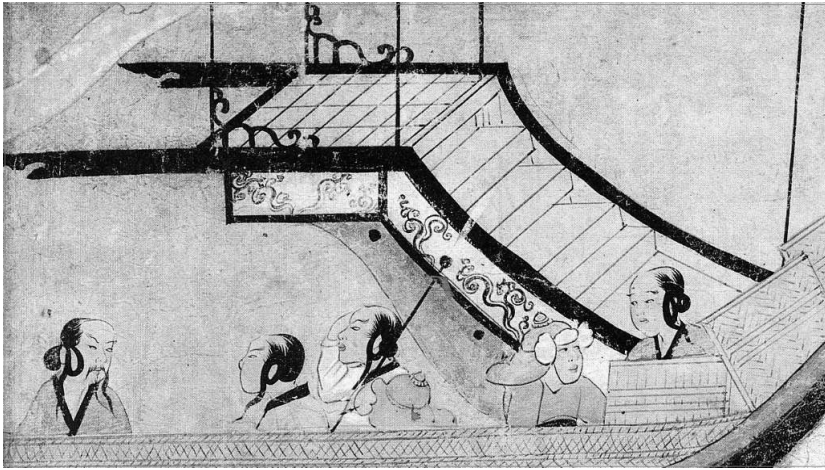
[그림 1] <몽고습래회사>의 군선 1(A)



[그림 2] <몽고습래회사>의 군선 2(B)



[그림 3] <몽고습래회사>의 군선 3(C)



그림에 등장하는 군선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 그림이 어느 전투에 대한 묘사인가 하는 것이 우선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 그림이 주로 志賀島(시카노시마) 일대에서의 전투라는 사실이 일찍이 池内宏에 의하여 논증된 바 있다.⁸³⁾ 小松茂美는 <蒙古襲來繪詞>의 해설에서 '26-27지(A)의 전투 장면은 志賀島 해전, 33-34지(C)는 志賀島 해전 종료 이후 정박상태로 추정된다고 하였고, 28-31지(B)의 그림은 순서(그림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⁸⁴⁾ 여하튼 이 그림의 대략적 시기를 1281년 제2차 일본 침입 가운데 志賀島 해전 전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池内宏의 상세한 고증의 결과에 의하여 정리된 내용이다. 1281년 5월 3일 마산을 떠난 여몽군은 거제도(거제도)를 거쳐 5월 21일 쓰시마(佐賀村), 그리고 이어서 잇키(壹岐)를 공격하고 6월 6일부터 13일까지 志賀島 일대에서의 해전으로 이어진다. 이후 여몽군은 서쪽 平戶(히라도) 부근으로 나아갔으며 영파에서 출발한 구

83)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pp. 236-258.

84) 中央公論社, 『蒙古襲來繪詞』, 1978, p. 98, p. 100, p. 106.

남송의 강남군과 平戶에서 합류한 것이 7월 초의 일이었다. 이들 연합군은 7월 27일 鷹島(다카시마)를 점령하였으나 다음 달 윤7월 1일 돌연한 태풍으로 일거에 궤멸된다.⁸⁵⁾ 이상과 같은 2차 동정의 경과를 감안할 때 원의 군선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志賀島 일대에서의 전투 장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남군의 경우는 아직 志賀島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81년 6월 초에 전개된 하카다 외곽 志賀島 일대에서의 해전에 대해서는 고려 측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6월 8일(임신) 김방경·김주정·박구·박지량·荊萬戶 등이 힘써 싸워 일본 군사의 머리 3백여 급을 베었다. 일본군이 돌진하여 오니 관군이 무너지고 홍다구는 말을 타고 달아났는데, 왕만호가 다시 측면에서 이들을 공격하여 50여 급을 베니, 일본군이 마침내 물러가고 다구는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 이튿날 다시 싸우다가 패전하였으며 군중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전쟁과 전염병에 죽은 자가 모두 3천여 명이나 되었다(『고려사절요』 20, 충렬왕 7년 6월).

당시 원군 휘하 漢軍의 일원으로 참전한 上百戶 張成의 묘비에는 이 전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6월 6일 왜의 志賀島에 이르렀다. 夜半에 적병이 내습하므로 公은 함선에 의지하여 맞서 싸웠으며 새벽이 되자 적이 물러갔다. 8일 적이 육지로부터 다시 오므로 公(張成)이 弓手와 최녀군을 대동하여 먼저 해안에 올라 적을 맞아 싸워 그 요해처를 점령하므로 적이 나오지 못하였다. 저녁이 되어 적군이 다시 모였으나 패퇴시켰다. 다음날(9일) 왜병이 크게 물러오므로 公은 휘하군을 거느리고 뛰어 들어가 분전하므로 적이 버티지 못하고

85) 2차 동정군의 전투 경과에 대해서는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pp. 222-236에 상세한 논의가 있다.

살상이 많았으므로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元 敦武校尉 管軍 上百戶 張成 墓碑銘』⁸⁶⁾).

이 志賀島 일대에서의 전투는 2차 연합군이 치렀던 가장 치열한 전투였으며, 이 섬의 위치가 하카다의 바로 외곽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저항도 그만큼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다만 위의 3종의 그림 중 (C)의 경우는 마산 출발의 동로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투 휴지 상태의 이완된 시점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志賀島 전투와는 무관한 별도의 장면으로 생각된다.

(2) 고려 군선 자료의 검토

이제 위에서 언급한 <몽고습래회사>의 3건의 군선 자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건별로 군선 그림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A) <26지-27지> 누마루가 설치된 '위풍당당한' 대선으로 전투병력 이외에, 악대, 水手 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고물(船尾)에 樓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물(船首)에 닻을 오르내리게 하는 물레 혹은 바퀴 모양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물과 고물에 모란당초를 화려하게 그리고 뱃전에는 인동무늬를 장식하였다.
- (B) <28지-31지> 전투 병력만을 적재한 경량의 선박. 도합 3척의 선박이 등장하며, 각각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창과 활 등을 들고 밀집한 '異國調'의 군사들이 상부를 꽃잎모양으로 한 방패로 뱃전을 완전히 방호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중 제1선은 방패에 검은 색 끈자를 장식하였다. 이 문양은 송·원 시대 건축의 장식이나 의복, 器物的 문양으로 흔히 사용하였던 것이라 한다.⁸⁷⁾ 3척의 배는 각각 조금씩 차이

가 있으나 이물(船首)의 바깥 부분에 둥근 고리를 부착한 점이 공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군선임을 추측케 한다.

- (C) <33지-34지> 3척이 등장하며 규모는 대선. 이물과 고물에 樓를 가설한 것은 26-28지의 대선과 같으나 구조는 차이가 있다. 독특한 머리 스타일과 복장의 인물들이 승선하여,⁸⁸⁾ 일찍이 池內宏은 이를 변발을 한 몽고군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배가 마산 출발의 동로군이라 단정한 바 있다.⁸⁹⁾ 그러나 이들은 머리 스타일과 인상착의로 보아 오히려 강남에서 출발한 구남송군의 함선들로 추측된다.

이상 3종의 군선에서 A와 C가 대선(千料舟), 군선 B는 전투형 선박인 이른바 輕疾舟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본고에서의 관심의 초점은 우선 이들 군선의 선적, 즉 강남에서 출정한 중국선인지 마산에서 출정한 고려선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몽고습래회사>의 그림에 실린 小松茂美의 해설이 좋은 참고가 된다. B의 전투선에 대한 해설 가운데 小松은 그림에 보이는 군사의 "얼굴색이나 표정에 극단으로 異國調가 풍기고 있는 점, 앞 페이지의 군병이 고려군이라면 이것은 몽고군이 아닐까" "꽃잎 모양의 방패에 끈자 문양을 표현한 것이 흥미로운데, 이것은 송·원시대 건축의 장식이나 의복·기물의 문양으로 흔히 사용되었던 것"⁹⁰⁾이라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또 그는 C의 대형 군선에 대하여 "장병들의 머리 모양이 흥미롭다. 뒤에서 가른 머리카락을 좌우로 角髮의 둥근 테를 만들어 귀 쪽에서 묶고 있다. 송·원시대 남자의 髮型을 보여주는 귀

87) 中央公論社, 『蒙古襲來繪詞』, p. 101.

88) 中央公論社, 『蒙古襲來繪詞』의 그림 해설에서는 이에 대해 "장병들의 머리 모양이 흥미롭다. 뒤에서 가른 머리카락을 좌우로 角髮(고대 남자의 結髮의 한 형태-필자)의 고리를 만들어 귀쪽에서 묶고 있다. 송·원 시대 남자의 머리 모양을 보여주는 자료일 것이다"(p. 106)라고 하였다.

89) 池內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pp. 333-334.

90) 中央公論社, 『蒙古襲來繪詞』, pp. 100-101, 小松茂美의 해설.

86) 장성의 묘비문은 池內宏, 『元寇の新研究』, p. 229에서 재인용함.

중한 자료가 아닐까⁹¹⁾라고 하였다. 즉 이에 의하면 小松은 A를 고려선, B를 몽고군의 전투선, C를 구남송군의 군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군선의 국적문제와 관련, 필자는 (A)고려군, (B)몽고군, (C)남송군이라는 小松茂美의 해설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군선 가운데 고려군의 A와 몽고군의 B는 모두 고려에서 제작되어 마산(합포)에서 발진한 고려 군선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우선 우리의 관심은 군선 A에 모아지게 된다. 필자가 A를 합포에서 출항한 고려 제작의 군선(대선)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우선 승선하고 있는 군사들의 복장, 그리고 선함에 장식된 문양에 근거한다.

〈몽고습래회사〉에는 앞쪽 그림에 1274년 1차 원정 때의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장병은 크게 3종의 군복 복장이 등장한다. 얼굴만을 노출시킨 투구(군모)에 두루마기같이 긴 길이의 무거운 군복, 이에 유사한 형태의 금속제(철 혹은 은) 갑주를 착용한 경우, 그리고 털모자에 짧은 두루마기 형태의 輕量한 전투복이 그것이다. 이들이 1차 원정에 참여한 군사들이고⁹²⁾ 따라서 이들은 모두 당시 합포(마산항)에서 출전하였던 군사들이었던 것이다. 제2차 원정의 그림 중 A형 군선에는 그중 세 번째, 털모자에 경량한 두루마기 군복을 착용한 군사들이 모두 승선하여 있다. 이는 이 군선이 2차 원정시 마산에서 출항하였던 군선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군선은 고려 제작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같은 고려 군선의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이 배에 장식된 문양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배에는 뱃전에 인동무늬를, 그리고 이물과 고물 등에 풍성한 모란당초문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이 무늬는 고려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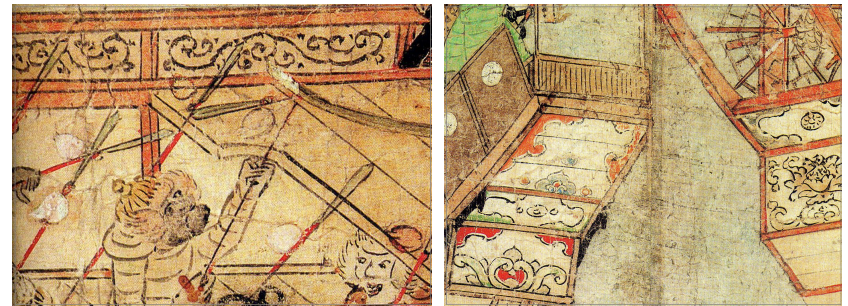
91) 中央公論社, 『蒙古襲來繪詞』, p. 106, 小松茂美의 해설.

92) 털모자에 짧은 두루마기 형태의 輕量한 전투복을 착용한 '원군'은 1차 동정에서 그림 7(前卷 제23-24지)의 鐵砲 폭발장면에 3인이 등장한다. 이 3인의 '원군' 그림은 후대(江戸 시대)에 새로 그려 넣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佐藤鐵太郎, 『蒙古襲來繪詞の繪の後世の改竄』, 『蒙古襲來繪詞と竹崎季長の研究』, 錦正社, 2005, pp. 21-34), 일반화된 논의는 아니다(大倉隆二, 『〈蒙古襲來繪詞〉を読む』, 海潮社, 2007, pp. 73-76).

자 혹은 암막새 기와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에게 매우 낯익고 친근한 무늬이다.⁹³⁾ 이는 이 군선이 고려에서 제작된 것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인동문의 경우 다른 종류의 B, C에도 등장하지만 A에서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다(그림 4) 참조).

앞서 언급한 3종의 군선 중 A에 水手들이 등장하는 것에 비하여 전투용 경질주로 추정되는 B에서는 전투병력만 승선하고 있음이 유의된다. 이는 水手의 대부분이 대선에 충당되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투용 경질주의 선박들이 공통적으로 船首部에 금속제 고리를 부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능성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본다. 이 전투선이 남중국에서부터 대양을 건너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역시 고려에서 제작되어 마산에서 발진한 전투선의 일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A 군선에 보이는 인동문과 모란당초문



93) 인동문은 고려시대 절터에서 출토하는 암막새 무늬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며, 모란문은 고려청자 문양으로 즐겨 채용된 무늬이다. 즉 국보 116호 청자상감모란문 표주박형 주전자, 국보 98호 청자상감모란문 두귀 항아리 등에서 유사한 문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필자가 참고한 청자 문헌에서는 방병선 등 『토기·청자 II』, 예경, 2000, pp. 376-377, pp. 400-401에 해당함). 한 송이 풍성한 모란을 묘사한 모란문은 12세기(1154) 고려 석관(李初元 妻 金氏 石棺)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고려·조선 묘지 신자료』, 2006, p. 44의 앞면 안쪽 모란도).

이제 군선 A, B가 마산에서 출항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궁금하였던 고려제작의 대선과 전투선을 직접 그림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군사들이 각각 몽고군인지 고려군인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실제 이 그림에서는 몽고군과 고려군을 명확히 구분하여 묘사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할 경우 모순점이 야기된다. 이같이 錯綜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앞의 해설에서 제안한 (A) 고려, (B) 몽고, (C) 남송의 구분은 어느 정도 적절한 구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흑자는 금속제로 보이는 군모를 착용한 B를 고려, 털모자의 A를 몽고군으로 보기도 하지만,⁹⁴⁾ 필자는 얼굴의 모습, 군선에서의 力闘 모습, 그리고 대형 군선에서의 노를 젓고 있는 고려인 水手의 존재 등으로 보아 털모자 형태 투구를 착용한 병사가 고려군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마산 출항의 대형 군선에서 노를 젓고 있는 水手야말로 고려에서 동원된 1만 5천의 승조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그림 5) 참조.⁹⁵⁾

마산에서 출발한 고려 제작의 대선의 형식에 대하여는, 김방경전의 기록에 고려 방식에 의한 제작이었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대선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려가 아닌 중국 선형의 모습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가령 <몽고습래회사> 군선의 복원도를 작성한 中西立太 그림과 山形欣哉의 그림에서는 이 같은 기왕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中西는 <몽고습래회사>의 몽고군 군선은 강남 제작의 중국선이라는 전제하에 복원도를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尖底와 隔壁 등 중국 강남선의 특징을

[그림 5] 고려 제작 군선에 승선한 연합군 중 추정 고려군의 모습과 고려인 水手



복원도에 반영하였다.⁹⁶⁾ 山形 역시 마산 출발의 연합군의 군선은 고려선이었지만, <몽고습래회사>의 군선은 제2차 침입에 동원된 강남군의 군선이었다고 보고 군선의 복원도를 그렸다.⁹⁷⁾ <몽고습래회사>의 군선을 고려선으로

94) 앞의 『蒙古襲來繪詞』(中央公論社 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였지만, 군선 B와 A를 비교하면서 앞의 A의 군병을 '고려군이라고 한다면 이것(B)은 몽고군일 까'하고 가벼운 추측을 던지고 있다.

95) 역사스페셜 <고려몽고 연합함대 일본원정, 주력은 고려군이였다>(2002. 2. 9)에서 전통의 상 전공의 김정자 교수(우송정보대)는 이 그림에서의 투구, 袍型(두루마기 형) 갑옷, 검은 군화 등의 모양으로 보아, 털모자 모양의 군모를 착용한 군사들이 고려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BS 역사스페셜, 『역사스페셜』 6, 효형출판, pp. 131-135).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96) 中西立太, 『日本遠征を可能にした蒙古軍の軍船を推理する!』, 『蒙古襲來と北條氏の戰略』, 成美堂出版, 2000, pp. 16-19.

97) 小學館 발행, 『蒙古襲來と戦いの繪卷』(週刊 日本之美をめぐる, 47, 2003. 4, pp. 18-19) 가운데, A그림 군선의 해설에서도 역시 그림상의 군선을 '중국의 목조 대형범선' '당시 중국 범선 유일의 회화 자료'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이 <원고려습래회사>의 국내에서의 사료적 이용을 제한시켜 왔던 것이다.

로 연결하는 것에 주저한 것은 일본 학계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⁹⁸⁾

이러한 점에서 그림에 등장하는 군선의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 된다. 그런데 石井正敏 교수의 최근 연구는 이 점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의 선박에 관심을 가진 石井 교수는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몽고습래회사>의 군선 그림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기왕의 논의로서 중국 강남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는 吉田光芳, 山形欣哉 등의 논의를 소개하는 한편 11세기 초의 고려 병선 및 조선시대 군선에 관한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몽고습래회사>의 군선 그림(A, B)이 마산 발견의 고려 제작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관련 문제에 대한 무관심 혹은 중국선으로의 단정이 일반적이었던 학계의 흐름에 비추어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 및 조선의 군선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다는 점은 새로운 연구상의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石井 교수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몽고습래회사>의 군선이 갖는 구조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⁹⁹⁾

- ① 갑판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상갑판(上粧甲板)에는 左舷·右舷 모두 女牆이 설치되어 있다(다만 그림상으로는 좌현측의 여장은 생략되어 있음).
- ② 상갑판과 하갑판 사이 좌우현측을 따라 前後에 網代壁이 만들어져(단, 그림상으로는 좌현측 망대벽만 나와 있음) 선실로 되어 있다. 이 망대벽은 판옥선에서 말하는 '牌板'에 해당하고 개폐식의 창도 만들어져 있다.
- ③ 노 젓는 일은 안전한 선실 내에 配備되어, 노를 젓도록 하였다.

98) 앞의 주 77, 78 참조.

99) 石井正敏, 『〈小右記〉所載 '內藏石女等申文'にみえる高麗の兵船について』, 『朝鮮學報』 198, 2006, pp. 56-57.

- ④ 상갑판(상장갑판) 船尾에는 조타수를 보호하기 위한 小屋이 만들어져 있다.
- ⑤ 오르내리는 데는 사다리(계단)가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점을 통하여 <몽고습래회사>의 군선(A, B)은 “선체의 기본적 구조에 있어서 조선시대 판옥선에 유사하고 刀伊의 賊을 격파한 고려 병선과 공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고려에서 건조된 배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몽고습래회사>의 몽고군선 그림은 고려 병선과 조선시대 판옥선 사이 약 5백년의 공백을 메우는 구체적 사료가 되고, 고려 전기 병선 조선 기술이 조선시대까지 連綿히 전승되었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¹⁰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적어도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해전장면의 유명한 그림 중의 원군 군선이 바로 고려 제작의 것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그림이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는 별문제이지만,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군선을 모두 일괄하여 원의 군선으로, 이 그림의 군병을 '몽고군'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는 고려의 군선, 고려군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고려군 혹은 고려 병선, 군사에 대한 분석은 이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5. 맺 음 말

본고는 1274년과 1281년 2차에 걸쳐 일본 정략을 위하여 마산에서 발견한 여원 연합군의 이른바 9백 척 규모의 군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100) 石井正敏, 위 논문, p. 57.

다. 당시 이들 군선이 모두 고려에서 건조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고려의 대외관계사 및 선박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혹은 일본중심의 치우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군선과 고려의 관계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군선 조성의 경과를 개관하는 한편, 이들 군선이 건조된 고려의 제작지인 장흥과 부안의 현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차에 동원된 병선의 대부분은 新造된 것이 아니고 삼별초로부터 획득하거나 고려 측이 보유한 병선을 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제한된 여건 아래 대대적인 군선의 실제적 건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13세기 말의 일본 자료 <몽고습래회사>에 그림으로 등장하는 군선의 일부가 마산 출정의 군선임을 논의하였다. 종래 <몽고습래회사>의 군선은 중국 강남에서 제작한 군선이라는 인식, 혹은 그림 중의 군선이 실제 고려 군선의 실제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하였고, 이 때문에 <몽고습래회사>를 고려 군선 연구와 연결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충지에 의하면 고려 군선의 조성지는 변산(부안)과 천관산(장흥) 이외에 1개소가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개소의 가능성으로서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경상도 남해안 지역을 언급하였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의 군량 확보 과정에서 경상도는 밀양 수산제, 전라도는 김제 벽골제의 집중 개발과 노동력 투입을 통하여 농업생산 증식에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보태었다.

본고는 특히 부안, 장흥 등 군선 제작의 현장에 대하여 주목하고, 아울러 <몽고습래회사>에 등장하는 군선이 고려 제작의 것임을 구체화하였다. 향후 이를 근거로 한 자료의 적극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지 현장에서의 결정적 자료가 아직 미흡하고, 또 <몽고습래회사> 자료 자체

에 대한 연구 축적이 미흡한 한국학계의 현 단계에서 앞으로 이를 보다 심화 연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본고에서 전개한 논의는 여전히 향후 연구의 확산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8. 9. 11, 심사수정일 : 2008. 10. 15,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高麗軍船, 造船場, 邊山, 天冠山, 蒙古襲來繪詞, 志賀島, 日本침입, 13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삼별초

<ABSTRACT>

The *Goryeo* and Mongol Combined Forces Invasion against
the Japan and Military Ships of the *Goryeo* Dynasty

Yoon, Yong-hyuk

This paper is to review military ships that used by the *Goryeo* and Mogol Combined Forces in the event of invading Japan in the year 1274 and 1281. Given that all the 900 military ships used during the invasion were all constructed in the *Goryeo* Dynasty, this event is very significant in studying *Goryeo's* foreign relations and its shipbuilding history. To date, however, most of research works have not carried out in-depth study on this event and studied it with Japan-centered point of views. Therefore, *Goryeo* and its military ships have not been well understood.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looked into military ship building practices in *Goryeo* and conducted site visits to shipbuilding sites, *Jangheong*(長興) and *Buan*(扶安). This paper refuted the claim that most of ships mobilized in the first invasion were not newly built and proved that ship building were actually conducted in those shipyards in a large scal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developed a discussion that some of military ships featured in Japanese account *Moko Shyurai Ekotoba*(蒙古襲來繪詞) at the end of 13th century were actually from *Goryeo*. To date, military ships in *Moko Shyurai Ekotoba* were predominately regarded as the ones built in South China and many argue that those are quite apart from the ships made in *Goryeo*. Therefore, *Moko Shyurai Ekotoba* has not been received much attention in studying military ships of *Goryeo*.

This paper has put a considerable importance in ship building sites in *Jangheong* and *Buan* and developed in-depth and very detailed discussion to prove that military ships features in *Moko Shyurai Ekotoba* are actually from *Goryeo*. Based on this, this paper has laid a foundation to use the account in future studies and in this point, this paper has a great significance.

Key Words: The *Goryeo* and Mogol Combined Forces, Military Ship in *Goryeo*, *Jangheong* (長興), *Buan* (扶安), *Moko Shyurai Ekotoba* (蒙古襲來繪詞), *Sikanoshima* (志賀島), Invading Japan, 13th Century, *Goryeo's* Foreign Relations, *Sambyolcho*